

## 해외출장복명서

출장자	소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직 위	선임연구위원	성 명	김영옥
출장기간	2016. 9. 25(일) ~ 2016. 9. 29(목)		출장지	미국, 워싱턴 DC		
출장목적	▶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한미일 3국 포럼( <i>US-Japan-Republic of Korea Trilateral Women's Empowerment Forum</i> ) 참가 ▶ 시민사회 대표로 발표 및 토론					
경비부담	본원 부담					
주최기관	미국 국무성					
주요 회의내용	▶ 여성의 정치참여 고취를 위한 각국의 사례 ▶ 여성의 경력역량 강화를 위한 각국의 사례 ▶ 3국의 개발원조 사업에서의 협력 방안 ▶ 향후 협력이 이루어질 영역 식별 및 협력 방안 ▶ 여성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3국 패널토의					

\*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6. 10. 4.

출장 복명자: 김영옥

#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김영옥

## 1. 출장배경 및 역할

- 한미일 3국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개도국 지원 정책 중 청소년의 교육을 장려하는 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3국 여성의 국가 및 지방자치 각 수준에서 정치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춰 여성의 정치참여를 독려한 사례, 정책 발표 및 참가자간의 공개 토론. 이 세션에서 본 출장자는 한국의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례를 소개함.
- 3국 여성의 경제 역량강화 세션의 토론주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고하고, 특히 (고위) 관리직 진출을 돕는 과거, 현재, 향후 정부정책 등임. 참여자 중 기업대표가 자체 노력, 기업의 여성근로자 역량 강화 노력을 도울 수 있는 정부 조치 등에 대해 발표하고 본 출장자는 여성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례,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및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민관협력사례를 소개함.

## 2. 출장일정

일자	세부내용	지역
9/25(일)	출국	한국 → 미국 워싱턴 DC
9/26(월)	- 한국대표단장 (최종문 대사) 주최 오찬회의 -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 주최 만찬회의	미국 워싱턴 DC
9/27(화)	- 개회식	미국 국무성 로이 핸더슨 컨퍼런스 홀
	- 여성의 정치참여 및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3국 사례 공유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	
	- 3국 패널토의	CSIS 2층
	- 주미 일본공사 주최 만찬	주미 일본공사관저
9/28(수)	출발	미국 워싱턴 DC
9/29(목)	도착	인천공항

### 3. 한국대표단 구성

분야	이름	소속 및 직위
정부	최종문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김아영	외교부 인권사회과 외무사무관
	정회진	여가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서기관
	박금옥	한국국제협력단 교육보건팀 팀장
의회	배지숙	대구시 의원
	정성훈	대구시 창조경제본부 전문관
기업	최효선	여성벤처협회 부회장
	손지애	전 아리랑TV 사장
시민사회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미	이대 국제대학원 원장
청년여성리더	이서현	세종대 대학생
	임채현	서울여대 대학생

### 4. 포럼(9월 27일) 일정

8:00 AM 등록

#### I. 개회식 (30분) - (언론 공개) 8:30 AM - 9:00 AM

본 세션은 언론에게 공개되는 유일한 세션임. 이 세션의 목적은 이 회의의 목표, 즉 각국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적으로 여자 청소년들의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기 위함

- 대표단의 발언
  - 미국 글로벌 여성 이슈 특사 캐서린 러셀의 환영사
  - 일본 여성·인권대사 아수코 니시무라의 환영사
  - 한국 외교부 다자회의조정관 최종문 대사의 환영사

#### II. 여성의 정치참여 고취 (75분) 9:00 AM - 10:15 AM

본 세션은 정부와 비정부 참가자 모두에게 공개되며 각국 여성의 국가, 지방, 지방자치 정치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춤. 선출직 의원들의 짧은 발언으로 논의를 시작한 후 여성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민간단체 대표단의 발표

와 참가자간의 공개 토론이 이어짐. 사회자는 미국 글로벌 여성 이슈 특사 캐서린 러셀.

- 의회위원의 발언
- 시민사회 회원의 발표
-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대표간의 공개 토론

10:15 AM - 10:30 AM [브레이크 - 15분]

### III.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 (90분) 10:30 AM - 12:00 PM

본 세션은 모든 참가자에게 공개되며, 각국의 여성의 경제 역량강화에 초점을 둠. 여성에게 경제 기회를 고취하고, 특히 고위 경영진의 진출을 돕는 과거, 현재와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토론 주제로 이루어짐. 기업부문 대표자들의 비즈니스 견해, 특히 정부가 여성 고용인의 역량강화를 도울 수 있는 방법과 권고를 공유함으로써 토론이 시작되었고 그 후에, 시민사회 대표의 발표 및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어짐. 사회자는 일본 여성·인권대사 아수코 니시무라.

- 기업부문 발표
- 시민사회 발표
-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대표간의 공개 토론

### IV. 미국 주최 미-한-일 오찬 (90분) 12:00 PM - 1:30 PM

### V. 분과 세션 (각 60분) 1:30 PM - 2:30 PM

#### A. 여성 청소년 교육 증진

본 세션은 정부 대표단 간의 회의로 진행됨. 참가자들은 3국간의 젠더중점 개발 프로그램 공조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데 여성청소년 교육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둠. 정부 참석자들은 외교부 대표와 각 국가 개발기관 대표자, 해외봉사기관 대표자들로 구성됨. 사회자는 외교부 최중문 다자외교조정관.

- 수석대표들의 간단한 성명서 발표
- 미국의 Let Girls Learn과 한국 및 일본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 기타 안건 논의

#### B. 여성의 경제역량강화 및 정치참여를 위한 공조

본 세션은 시민사회와 민간분야 대표자들 간의 회의로 진행됨. 참가자들은 여성의 경제역량강화 및 정치참여에 있어 존재하는 공통이슈와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논의함. 참가자들은 또한 어떻게 분야와 국경을 넘어 소통할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미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논의함. 사회자는 미

국 Sandra Blank 박사.

- 여성의 경제역량강화 및 정치참여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및 미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형식

2:30 PM - 3:00 PM CSIS로 이동

#### VI. Think-tank 주최 여성경제역량강화 관련 행사 (120분) 3:00 PM - 5: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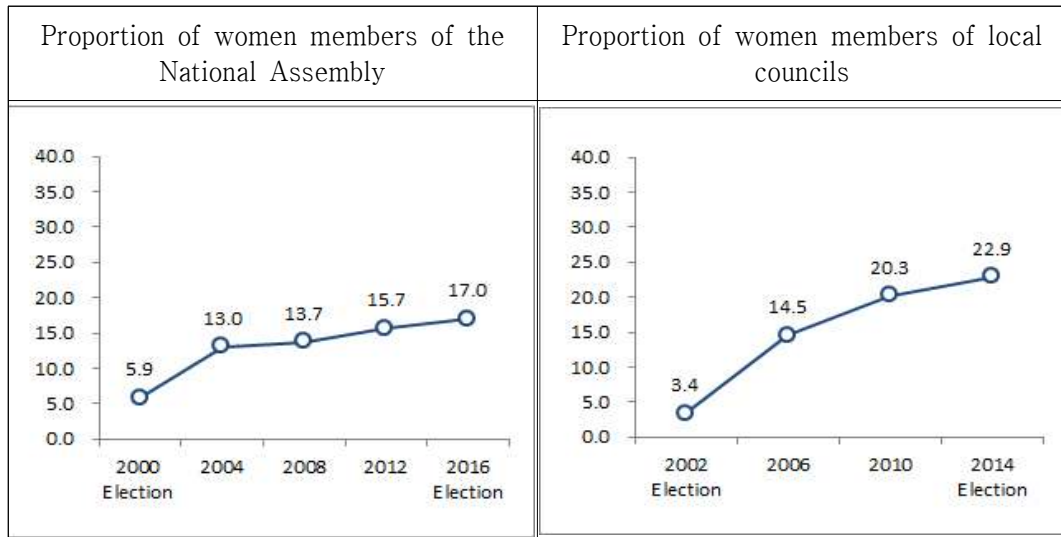
- 장소: CSIS 2층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참가: 아시아재단 (Asia Foundation) 을 좌장으로 각국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된 패널 토론. 한국대표로 손지애 전 아리랑TV 사장 참가
- 예상 참가자: 정부, 시민사회, 경영자, 학계 및 언론인 100명 (이 행사는 생중계되며 향후 웹에도 업로드 할 예정임)

#### VII. 일본 주미공사 관저에서 3국 대표단 저녁 만찬 (6:15 PM)

### 5. 출장자 발표문 개요

#### 여성의 정치참여 고취 (김영옥)

- 2000년대 초반 해도 여성의 정치참여는 미약했으나 여성의원 공천할당제 등 법제도의 진전으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중 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당이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때 비례대표 후보자 중 50% 이상을, 지역구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이 되도록 함.
- 또한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을 통해 선출직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를 규정함.



- 정부위원회에 여성 참여는 국가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양성평등한 정책기획과 실현을 위해 중요한 의미는 가짐. 중앙부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부위원회 구성 시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여성가족부는 2017년까지 여성비율 40% 달성을 의무화하였고, 매년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공표하고 있음.

Women's Participation in Government Committees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Proportion of designation of female members	22.3%	24.8%	25.7%	27.7%	31.7%	34.5%

- 대통령과 제1야당의 당수가 여성으로 최상위 정치수준에서는 여성참여가 실현되었으나 장차관등 중상위 수준에서의 여성참여 수준은 미흡함.
- 장차관 중 여성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유일하며, 2015년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2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각각 3.7%, 2.6%에 그침.

- 여성의 정치참여 고취를 위해 다양한 지점에서의 조치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정치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여성인재 발굴 및 DB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봄.
- 이 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여성대표성 제고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여성인재 DB 구축은 2017년까지 1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함.
- (2012년) 3.4만명 구축 → (2013년) 4.7만명 → (2014년) 6.4만명 → (2015년) 7.9만명 구축

####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김영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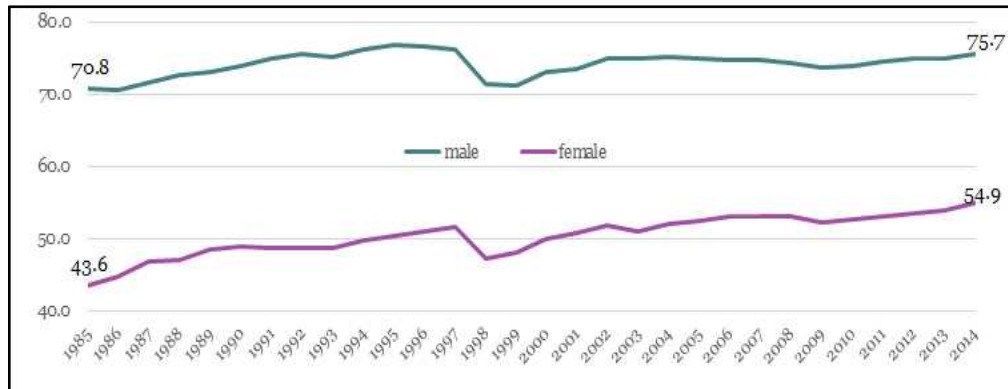
- 한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는 여성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성장 및 사회 안정을 위한 이슈임.
- 성장동력 저하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여성고용률 제고’는 국가성장전략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
- 여성고용으로 구원투수를 마련하라는 국제사회의 진단과 충고가 이어짐. “Korea ought to increase the female employment rate as a relief pitcher. “

[Table 1] Changes in Some Demographic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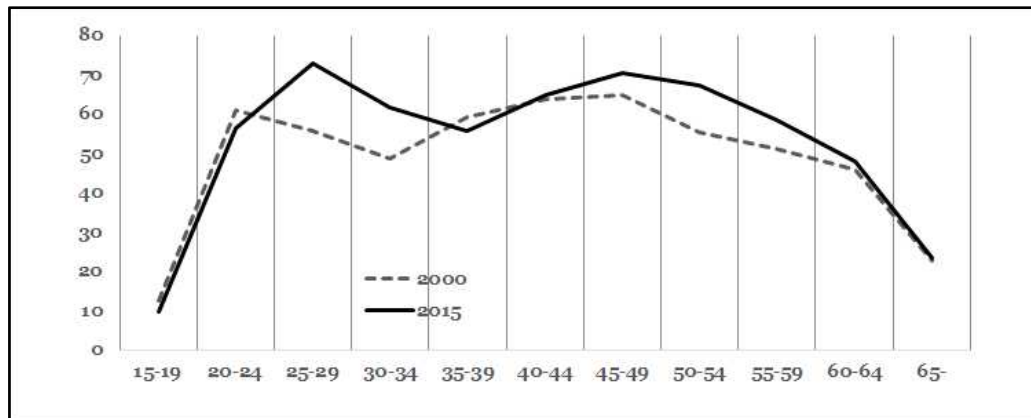
	Age of Marriage (Women)	Total Fertility Rate	Life expectancy at Birth	
			Women	Men
1970	23.3	4.53	66.7	59.8
1990	24.8	1.59	75.9	67.7
2000	26.5	1.47	80.0	72.8
2005	27.7	1.08	81.9	75.1
2010	28.9	1.23	84.0	77.0
2014	29.81	1.21	85.5	79.0
2015	29.96	1.24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해 왔으나 남성과의 격차가 크고, 또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연령대별로는 동일하지 않음.
- 지난 20년간에는 20대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현저하고 최근에는 50대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함.
-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낮음. 이는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 광범위하게, 그리고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시사(여성의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Figure 1] Trends in Employment Rates by Gender



[Figure 2] Employment Rates by Age Groups for Women



- M자형 커브로 대변되는 한국여성의 취업경력 단절에 대처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임.
- 경력단절은 여성의 관리직 진출을 어렵게 하고 남성과의 임금격차를 늘리는 주요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임.
- 먼저 경력단절된 여성의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의 147개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취업희망여성에게 직업의식,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New Job Centers for Women have been established since 2008, as one-stop employment service delivery systems. Here, job counseling including an aptitude test, job training, and job placement services are available mainly for the women who have a long break from the job and want to re-enter the labor market.
- As of 2015, there are 147 New Job Centers throughout the country (<http://www.wnewjob.or.kr/>).

[Figure 3] Three Functions of "New Job Center"



Job Counseling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unseling career path</li> <li>• Vocational aptitude tests</li> <li>• Registration on the Job Information Ne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ork ethic education</li> <li>• Job training</li> <li>• Acquiring Certificat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oviding job vacancy information</li> <li>• Accompany job interview services</li> <li>• Job placement &amp; internship</li> <li>• Follow-up care after employment</li> </ul>

- 최근들어 경력단절로 인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경력단절 자체를 예방하는 조치에 정책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부각. 즉 출산 및 육아기에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존의 90일 유급 출산휴가, 1년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자녀나이 8세까지 사용 가능하고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마련히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다수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3가지 유형의 사업주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①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임신·출산 후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제공
  - ② 육아휴직자가 있는 사업장에 ‘육아휴직지원금’ 지급
  - ③ 출산·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 임신·출산기 고용 유지를 위한 일·가정 양립 포트폴리오를 개인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등의 제도 신설
-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5년 현재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5.6%에 그침.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 중 3일 유급휴가

- 2014년 10월부터 ‘아빠의 달’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상한 150만원))
-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AA)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시행 중이나 2013년에 개정하여 모니터링 대상 기업을 기존 여성 근로자 비율 60% 미만 기업에서 70% 미만 기업으로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제 도입
- 인력수요처인 기업의 자발적 실시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마련
  - 여성가족부는 2014년 6월부터 세계경제포럼(WEF)과 협력하여 주요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 120여개로 구성된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운영. 이 민관협력TF는 육아휴직 장려, 가족사랑의 날 실천, 가족친화경영문화 확산 등 80여개의 실천과제를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실천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음. 우수사례에 대한 성과보고회, 사례집 발간, 실천캠페인 등을 수행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제를 2008년부터 시행. 신규등록기업 수가 2008년 9개로 시작하여 2014년에 444개임. 2014년 12월 기준 총 누적 인증기업 수는 956개임.
- 사업장 내 남녀 고용차별 조치 및 관행, 직장내 성희롱 등을 점검·시정하기 위한 기제로
  - ① 기존의 지방고용관서 근로감독관 활용
  - ② 사업장 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임명
  - ③ 민간위탁으로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정·운영 중 (전국 15개소)

## 6. 관련 사진

### - 포럼 전경



### - 개회식



- 본 출장자 발표 사진

